



## 들어가기

“현대세계, 특히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글자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었다. 글자는 단어의 덩어리와 의미의 연상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시각경험이 되었다.” 장(Georges Jean)은 『문자의 역사』에서 도시 속 글자에 대해 일찍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도시 행정가들에 의해 체계적인 도시 설계의 일부로서 재단되는 글자이지만, 이 글자에는 정비와 디자인이라는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묘한 태생적 속성이 있다. 교통표지판의 타이포그래피가 엄격한 행정의 산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시장 상인들의 손글씨, 서로 경합하려고 애쓰는 간판들, 담벼락의 그라피티와 시위 현장의 문구들 그리고 즉흥적으로 생산되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다양한 일회성 공지 등은 도시에 사는 각 개인이 수행하는 적극적 발화이다. 이 글자들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소리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적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각적 소음’이야말로 도시를 가장 도시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렇듯 제도권의 도시 경관 틈새에서 자생적으로 발아하는 글자의 존재 양상은 유기적 생물체를 보는 느낌과도 흡사한데, 이는 글자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 속 글자를 통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도시의 언어 경관이 우리에게 건넬 수 있는 내용이란 무엇일까?

지난 11월 29일(월)부터 12월 13일(월)까지 3주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동반자(시각예술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이름의 수업을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수업은 총 10명의 인도네시아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었다.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간명했다. 수강생들은 도시의 글자와 타이포그래피에

주목함으로써 도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과 시야를 터득하는 것이며, 나는 역으로 인도네시아의 거리 풍경을 답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후자의 목표가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구미권의 디자인 분과에서 촉발되고 있는 제3세계 디자인에 대한 관심사 때문이었다. 구미권 일부 연구자들은 그간 전개되어 왔던 디자인 담론의 공백과 한계를 인지하며, 제3세계의 디자인 담론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인종과 젠더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정책’과 함께 제 3세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수업이 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통로가 아닌, 거리 글자를 매개로 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쌍방 간의 시각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1회와 2회 수업은 거리 글자 전반에 대한 나의 강의와 강독으로 구성했고, 마지막 수업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각 수강생은 1, 2회차 수업을 통해 거리글자에서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이슈를 파악하고, 3회차 수업에서는 이를 기초로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발견한 인도네시아의 거리글자 풍경을 발표했다. 마지막 날, 기대 이상의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했던 주제와 풍경 앞에서 나의 디자인 세계관이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300년 이상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아랍 문화권이 형성된 곳이자 수백 종의 토착어가 존재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도 받았던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멜팅팟(melting pot)’이었고 도시 글자엔 그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이하 내용은 수강생들이 직접 제출한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 과정상 압축과 요약이 불가피했음을 미리 밝힌다. 아울러 저작권이 문제시될

1 조르주 장, 『문자의 역사』, 이종인, (시공사, 2015), p.130

수 있는 사진들은 수강생들이 보내온 발표 자료 화면으로 대신했다.

귀중한 발표 요약문과 도판을 제공해 준 10명의 수강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채롭고 역동적인 세계 곳곳의 도시 속 글자풍경이 디자인 담론의 ‘다성성(polyphony)’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 모국어

#### 자스민 즐카르나인(Jasmine Zulkarnain)

모국어는 사람이 태어나 자란 문화에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의미한다. 나는 이 개념을 도시 타이포그래피 맥락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21세기 토착민의 눈으로 인도네시아 도시 마카사르(Makassar)의 타이포그래피를 읽어내감으로써 도시에 상존하는 다국어성(multilingualism)과 도시 인구의 다양성을 파악해 보았다. 마카사르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술라웨시슬라탄주의 주도이다. 15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구 도시이자 무역의 관문, 한때 동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마카사르는 문화적 용광로(melting pot)로서 발전했고, 지역의 인구 다양성에 기여했다. 마카사르의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은 21세기 도시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거리 명판에 널리 사용되는 롬타라 문자(원시 인도네시아의 소수 언어인 마카사르어, 부기스, 만다라어에만 사용됨)에서부터 모스크와 기타 종교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국어-아랍 문자에 이르기까지 도시 속 다양한 글자들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이슬람 문화의 토착화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초월하는 기업 간판의 이중 언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의 현대적 글꼴(그리고 언어) 사용 방식을 보여준다.

- 트럭 미술

이크라 피르다우시(Iqra Firdausy)

지난 20년간 트럭 미술은 인도네시아의 도시 예술로서 급격하게 발전했다. 트럭의 후방을 장식하는 독특한 그림과 슬로건의 조합은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저렴한 유흥이다. 유료도로나 항구에서 긴 시간 대기할 때 트럭 미술은 운전자들의 줄임이나 지루함을 달랠다.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트럭 운전사의 일상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 트럭 화가가 시작한 게 계기다. 붓과 에어브러시 등 대부분 손으로 그리는 이 그림들은 다양한 개념과 주제를 녹여내고, 완성하는데 며칠이 소요된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는 여러 지역 트럭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다양한 트럭 개조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트럭 후방 그림을 만날 수 있다. 2018년에는 '족자카르타 트럭 페스티벌(Jogjakarta Truck Festival 2018)'과 같은 정기 행사가 열려 이 독특한 미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양식의 변화도 있었는데, 비주얼은 점차 타이포그래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 활동은 예술 창작임과 동시에 대중이 즉각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화가가 트럭 후방을 직접 그리진 않는다. 또한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사진과 글꼴로 인해 정체성을 잃었다. 인도네시아 트럭 운전사들의 삶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이 트럭 미술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흥미로운 그림을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만큼 보다 관심을 두고 봐야 한다. 사회, 문화, 경제부터 종교, 젠더, 민족주의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미술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아랍 디아스포라

피아메타 가브리엘라(Fiametta Gabriela)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 영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언어이다. 8세기에 아랍인들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인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왔고, 이를 계기로 아랍인과 인도네시아인 간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아랍인들은 이슬람의 가르침도 전파했다.

오늘날 아랍 문화의 유산을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랑가르 텡기 모스크(Langgar Tinggi Mosque), 무함마드 첵후 모스크(Muhammad Cheng Hoo Mosque) 외에 리아우 주의 리젠츠 오피스(Regent's Office), 남칼리만탄의 트래디셔널 홀(Traditional Hall) 등이 그 사례다. 이 역사적 건축물에서는 문화 간의 교류로 인한 혼종 형태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표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나의 몸과 영혼을 용서한다(minal aidin wal faidzin)" 혹은 'Selamat Idul Adha'는 아랍의 휴일 중 하나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에서는 자동차 스티커, 아랍 캘리그래피인 툴루트(Thuluth) 문자가 적용된 사우디 아라비아 국기 등에서 아랍 문화가 혼재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수마트라 섬의 도시 팔렘방에는 알-쿠란 알-아크바르와 같은 아랍인의 흔적이 있으며, 이곳 모스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각 코란이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아랍 문화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 불과하다. 아직 기록되지 않은 아랍 문화 영향이 인도네시아 도시 곳곳에 존재한다.



- 식민지 유산

셈파카 수라쿠수마(Cempaka Surakusumah)

인도네시아는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과연 이 식민지의 유산이 아직도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을까?

나는 반둥과 자카르타를 살펴봤다. 먼저, 서쪽 자바에 위치한 반둥시의 브라가 지역. 반둥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붙여준 '자바의 파리(Parijs van Java)'라는 별명이 있다. 파리의 급격한 패션의 발전기가 이 지역 예술에 대한 관심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곳 건축물에는 아르데코 양식이 두드러진다. 네덜란드 식민지 유산 건축물 일부는 오늘날 상점이나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한때 동남아 최대 규모의 호텔 중 하나였던 사보이 호텔도 있는데, 유럽식 타이포그래피와 아르데코의 특성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로 인해 수입된 또 다른 유럽 문화를

여전히 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카페 바타비아(Cafe Batavia)이다. 약 1830년대에 건립되었는데 네덜란드 총독의 관저이자 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곳이다.

최근 보편적 추세 중 하나가 용도 폐기된 건축물을 복원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다. 한 예로 엠블록(m bloc) 스페이스이다. 1971년 9월 15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수십 년 동안 폐쇄되어 있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이 엠블록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다른 예로 Post 블록이 있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시대의 옛 우체국 건물에 있다. 2021년 10월 10일에 개장한 이 건물의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인 환경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새로 문을 연 매장 중 일부는 유럽식 타이포그래피와 아르데코 양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전주 광고 전단지

빈방 게밀랑(Bintang Gemilang)

타이포그래피와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를 관찰하게 되었다. 이 기둥은 거리 곳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의 거리 풍경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한 결과, 사람들은 전주를 광고 지면처럼 사용했다. 전단지 등이 기둥에 접착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여러 광고 유형 중에서 변기 펌프 서비스(Sedot WC), 파티 광대 서비스(Badut Pesta) 및 소파 청소 서비스(Cuci Sofa) 광고가 가장 흔했다. 흥미로운 점은 광고 디자인이 어딜 가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정보(서비스-제품 제목 및 연락처)가 제공되는데, 항상 파란색 대문자 글꼴이 적용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디자인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디자인의 사례는 보지 못했다. 도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토속적인 디자인이라고 본다. 이 디자인은 일반적으로는 '못생긴(ugly)'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자카르타의 일부 젊은 세대 중에는 오늘날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의 현대 디자인이 지나치게 '서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러한 '토속적' 디자인을 현대 디자인에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카멥스키 아트클럽/스튜디오(Kamengski ArtClub/Studio)의 전주 전단 디자인을 소재로 한 재킷 디자인이 그 사례다.



- 수라바야

앤드류 부디만(Andrew Budiman)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는 항상 영광스러운 과거 이야기의 유령에 가려져 있다. 한때 18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도시 중 하나이자 인도네시아 민족 혁명(Indonesian National Revolution) 기간 수라바야 전쟁으로 '코타 팔라완(영웅의 도시)'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무역, 기업, 식민주의, 종교, 민족 디아스포라 및 이념적 정치 운동 등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적 용광로인 셈이다. 동남아의 다른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 또한 글로벌 초연결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역-글로벌 정체성 상충의 긴장에 직면해 있다. 이 도시는 끝없는 전쟁터가 될 운명인 것 같다.

수라바야의 이러한 역사적 연속체, 집단 기억, 논쟁의 궤적은 도시 구조구석에 흩어져 있는 글자

모양에서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산 시장 표지판, 블랙 메탈 밴드 로고가 있는 헬멧을 쓴 히잡 여성, 현대적인 쇼핑몰 및 공공장소 표지판, 미니버스 스티커, 트럭의 측면 및 후면 그래픽, 네덜란드 식민 표지판, 홀리건 벽화, 길거리 음식 브랜딩, 행사인 카트, 디지털 인쇄로 가능해진 광활한 야외 비닐 사이니지 그래픽 등.

일상의 글자들은 도시라는 이름의 종이에 타이핑된다. 그것은 마치 도시 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나가는 끝이 없는 시집과도 같다. 도시 글자를 집중적인 포렌식 검사로 관찰해 나갈 때 우리는 도시 내러티브의 피부 조직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글자와 활자가 살아 있는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다. 인쇄되고, 칠해지고, 타이핑되고, 받아쓰고, 보존되고, 지워지고, 추방된 글자들은 무한 루프 속에서 그만의 정체성을 탈식민화하고 재발명할 것이다.

- 메시지

아구스 한도코(Agus Handoko)

내가 주목한 것은 도시 살라티가에 있는 비상업적인 시각적 이미지나 거리 예술이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는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된 소통 공간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장은 전달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사람들은 거리의 담벼락 등에 자신들의 메시지나 예술적 취향을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물 파손(vandalism) 혹은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이라는 상반된 시선이 있다. 그러나 막상 많은 도시 공간은 막대한 광고 자본이나 정치 캠페인으로 뒤덮여 있고, 이것은 종종 시각적 쓰레기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거리 타이포그래피나 예술이 표현의 자유를 향한 민주주의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흥미로운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포스터에 인쇄된 정치적 문장, 암호와 같은 시각적 코드 및 담벼락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이다. 거리 타이포그래피가 시각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정치 포스터의 경우 일관된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헬베티카(Helvetica)와 같은 현대적 글꼴, 대담하고 구조화된 인상을 자아내는 스텐실 글자, 그리고 견고한 메시지 등이 특징이다. 담벼락에 적용된 글자들은 스크립트에서부터 장식적인 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든 유형의 거리 미술과 타이포그래피는 그만의 열정과 의지의 결정체이며, 도시에 사는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 한다.



- 튀김 노점상

아피파 후스눌 아말리아(Afifah Husnul Amaliyah)

진정한 의미의 음식 경험은 길거리에 있다. 길거리 음식을 관찰함으로써 도시 문화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수도 자카르타 길거리에서는 중국 및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의 토착적 문화 영향권 안에 있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중 페첼 라몽안(Pecel Lamongan)은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이다. 이 요리는 1970년 라몽안 지역 사람들이 자카르타로 이주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 인도네시아 대도시 변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이 음식 노점상들은 종종 도시 문제가 되고 불법이기도 하지만, 페첼 라몽안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다.

페첼 라몽안은 자카르타 밤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 노점상의 배너가 독특하다. 배너는 포장마차의

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림막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특이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과감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네온 컬러가 특징이다. 이는 페첼 라몽안 배너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하르토노(Hartono)는 가장 유명한 배너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그는 30년 동안 이 배너를 제작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배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밤에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온 색상을 적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작에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글자와 동물을 그려내어 외곽선을 만든 후, 배너 위에 네온 컬러를 사용하여 붓으로 칠한다.



- 음식 타이포그래피

아비가엘 알리사(Abigael Alisa)

탕게랑의 고대 문화와 전통 시장은 파사르 라마 지역(라마 시장)으로 수렴된다. 이곳 야외 공간은 문화 유적지 이미지에서부터 드럼 소리 등 수많은 요소가 중첩되어 감각적 인상을 형성한다. 이 지역의 두드러진 문화는 벤텅(Cina Benteng) 정착민들과 이슬람 커뮤니티로서, 일 년 동안 이 커뮤니티의 행사와 냄새 그리고 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수단 및 토착적 자생적 스타일이 현대적 상점 사이로 뒤섞여 있다. 포장마차와 식당에는 곡선과 직선이 혼합된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이 디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현상은 이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노점상 사이에서 만연해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 동안에도 파사르 라마는 여전히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밤에는 더욱 붐빈다.



대낮에도 보행자, 보행자 전용 차량, 차량, 식품 포장마차로 북적인다. 파사르 라마에서 얻는 우리의 도시 경험은 특정 신념, 감정, 생각 및 기억에 기초해 있다. 냄새가 감정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감각이라는 연구도 있다. 가게 간판이나 서체는 과연 시각 이외의 감각에 호소할까? 힌드만(Sarah Hyndman)에 따르면 글자의 형태는 맛, 냄새 및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글자란 우리가 주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감각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 역사적 건축물로 보는 인도네시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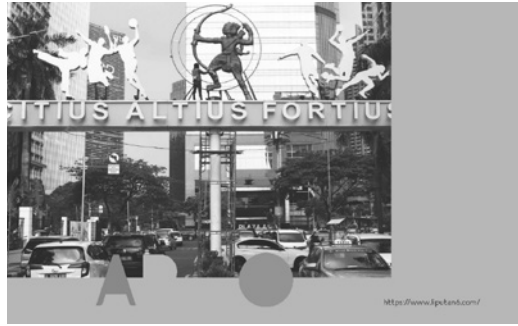
타이포그래피

로비야나 시나가(Robiyana Sinaga)

인도네시아에 있는 몇 가지 역사적 건축물의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겔라라 붐 카르노 주경기장(Gelora Bung Karno Main Stadium)이다. 대부분 축구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인 수카르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경기장이다. 이 경기장의 주 출입구 상부에는 'Gelora Bung Karno'라고 경기장 이름이 세리프 글꼴로 주조되어 있다. 활 쓰는 동상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굉장히 상징적이다. 경기가 끝난 후 반대편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 보는 문구와 다른 문구인 “더욱 빠르게, 더욱 높게, 더욱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문구는 더 현대적이고 심플한 글꼴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은 자카르타에 있는 미술관으로 1999년도에 건립되었다. 여러 주요 미술 관련 행사와 전시들이 열렸는데, 미술관 간판은 약간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술이 국가가 소유하는 보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디자인은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런데 뒤에 정원과 나무가 있어서 간판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간판 자체는 아름답지만, 간판의 위치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다.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1707년도에 개조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 자주 방문하고 식민지 시대 유산으로서의 건축물을 즐긴다. 파사드에 새겨진 문구는 이 건축물이 리베크(Abraham van Riebeeck) 총독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말한다. 그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총독이었다. 음각으로 새겨진 모양새가 우아한 느낌을 전달한다. 🎧



참고문헌

- 조르주 장, (2015), 『문자의 역사』, 이종인, 시공사